서구, 수능일 교통·소음대비 현장대응 나선다



광주 서구청 전경 사진 /광주 서구청 제공

7개 시험장 교통관리·소음 통제로 수험생 불편 최소화

수능 이후 청소년 주류판매 근절 캠페인 전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이 온전히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통과 소음, 청소년 보호를 아우르는 현장 중심의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교통대책에는 교통지도과 직원과 모범운전자 등 26명이 투입된다.

시험 당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관내 7개 시험장 주변에는 현장 근무자 24명을 배치해 차량 진출입과 교통 흐름을 관리한다.

시험장 주변 주요 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해 교통 혼잡을 예방하고 지각이 우려되는 수험생에게는 긴급 수송 등 교통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험장 주변 공사장과 소음 발생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기후환경과는 3개 근무조 7명을 편성해 시험장 주변을 수시로 순찰하고 소음 발생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영어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10분부터 1시35분까지는 소음 발생 요인을 집중 통제하고 돌발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인근 공사장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수험생들의 시험이 끝난 뒤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현장 활동을 이어간다. 서구는 19일 오후 8시30분 상무지구에서 광주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청소년 대상 주류판매 근절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시 법적 제재와 호객행위 근절을 홍보하고, 주류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수험생들이 불편이나 돌발 상황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수능 이후에도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구는 시험 당일 각 분야별 담당 인력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교통 혼잡이나 소음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능 이후에는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가영 기자

남구 "지역을 빛낸 주인공을 찾습니다"

26일까지 남구민 상 후보자 추천 접수

사회·봉사 및 효행 등 5개 분야 시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화합에 기여하고 남다른 헌신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의 귀감이 되는 주민을 찾는다.

남구는 17일 "지역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고, 그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23회 남구민 상 수상 후보자를 오는 26일까지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남구민 상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공동체 발전과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 온 주민들의 공로를 기리고, 성숙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시상 부문은 사회·봉사와 효행, 문화·예술·체육, 지역사회 발전, 교육까지 5개 분야다.

남구는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중심으로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자 추천 접수는 11월 26일까지이다.

남구는 접수가 끝난 뒤 30일까지 공적 조사를 진행한 뒤 심의를 거쳐 분야별 수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며, 남구민 상 시상식은 12월 중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남구 관계자는 "우리 주변에는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묵묵히 땀 흘리는 숨은 주인공들이 많다"며 "남구의 자랑스러운 인물이 남구민 상 수상의 영예를 안을 수 있도록 주민과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천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남구민 상은 지역 곳곳에서 오랜 시간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온 주민들의 노고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눈에 띄는 성과뿐 아니라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헌신해 온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사회·봉사 분야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한 인물을 대상으로 한다. 효행 분야는 부모와 웃어른을 공경하고 가족과 이웃에게 모범이 되는 효행을 실천한 주민을 선정한다.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살펴볼 예정이다. 지역사회 발전 분야는 주민 화합과 지역 경제 활성화, 공동체 형성 등에 이바지한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교육 분야는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 양성, 평생교육 발전 등에 기여한 인물이 추천 대상이다.

후보자 추천은 남구민뿐 아니라 지역 내 기관과 사회단체 등에서도 가능하다. 추천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후보자의 공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남구청 관련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추천 자격과 제출 서류 등은 남구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구는 접수된 후보자들의 공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와 관련 자료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상 자격과 공적의 지속성,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박종수 기자



광주 남구청 전경 사진 /광주 남구청 제공

